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7. 19(토)

산업부장관, 첫 행보로 전력수급 현장점검

- 원격으로 한전의 폭우 복구상황도 점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장관 임명 직후 첫 행보로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를 방문하여, 전력설비를 점검하고 금년 여름 전력수급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발전본부는 세계 최초의 도심 대용량 지하발전소로서, 홍수와 한강 침수 등 대형 재난에 대비하여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건설되었으며, 홍수 및 침수 대비 시스템도 갖추어, 극한의 상황에서도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중이다.

이번 주 내린 많은 비로 7월 16일 이후 약 25,000호 이상에서 정전이 발생(복구율 97.2%, 7.19 7시 기준)하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 날 회의에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 본부장, 광주전남 본부장도 원격으로 참석하여, 특히 피해가 심했던 중부, 호남 지역의 정전, 전력설비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하였다. 김 장관은 금번 호우로 인한 전력설비 고장과 정전을 조속히 해결하는 한편, 비로 인해 취약해진 지반, 시설 등을 면밀히 살피고 취약점은 즉시 보완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번 주는 비로 인해 폭염이 일시 완화됐으나,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다시 상승하는 등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력 당국은 이번 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인 97.8GW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전력 유관기관들의 철저한 비상 대응체계 유지와 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김 장관은 “안정적 에너지공급은 국민의 일상과 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정부는 발전설비 뿐 아니라 송·변전설비, 가스 시설 등 에너지 재난 취약시설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날 참석한 한국전력공사 지역 본부장들에게 “전력공급은 폭우가 지나간 뒤 피해를 복구·정비하는 데 매우 필수적인만큼, 정전을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폭염·폭우 상황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날 점검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도 참석하였으며, 이사장에게는 “산업단지 상습 침수지역, 급경사지, 공사 현장 등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침수 시 신속한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담당자	사무관	이민석 (044-203-3881)



□ 현장점검 개요

- 일시 : '25.7.19(토), 14:00~15:00(1시간)
- 장소 :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장, 서울발전본부발전소장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장, 광주전남본부장(영상)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장(영상)
- 점검 내용 : ①호우로 인한 정전 및 전력설비 피해 상황 파악 및 대응
②여름철 전력수급 관리 대책
③발전설비 현장점검

□ 세부일정

* 모두발언까지 공개

시간			세부 일정	비고
14:00	14:30	30'	•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 ① 장관 모두발언 ② 한전 브리핑 ③ 중부발전 브리핑 ④ 전력거래소 브리핑 ⑤ 토론 및 마무리	서울발전본부 회의실
14:30	14:35	5'	• 현장 이동	
14:35	14:55	20'	• 발전설비 점검	중앙제어실 및 지하발전소
14:55	15:00	5'	• 기념촬영	